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빛, 마음의 거리를 좁혀준다

주님 성탄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오늘 연중 2주일 미사전례의 말씀들은, 우리들 곁에 오신 메시아 주님을 소개하는데, 첫째 독서를 따르면 그분은 “민족들의 빛”(이사 49,5)이시요, 복음에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이십니다.

내게 오신 구원자 주님이 민족들의 빛,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표상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전례말씀을 따르면, 자신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그분께로 ‘모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오늘 복음말씀에 비추어보면, 나와 너 안에 있는 죄로의 경향과 힘을 극복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실제 모습은, 주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1코린 1,2 참조) 모습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나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구원이, 우리들을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모여들게 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죄’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분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들 안에 하느님께 대한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피조물과의 사이에도 분열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가로막히면서 생명이 오가는 친교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열과 벽, 거리감을 내 안에서 또 세상 어디에서나 항상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와 너 사이에, 더 나아가 나와 자연과의 사이에 가로놓인 벽이나 장애물이 보이십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벽을 치우고 거리를 좁히는 구원의 빛으로서.



이학을 사바 신부 | 나자렛 예수 수녀회



제 1 독 서 이사 49,3,5-6
 화 답 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1-3
 복 음 요한 1,29-34

주일 전례

한무숙의 <생인손> 속의 신앙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한무숙은 인간 구원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인데 그 중심에는 가톨릭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생인손>은 그 대표적 작품이다. 구한말에서 6·25 이후에까지 이르는 표마리아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긴 인생 이야기이다.

주인공 표마리아 할머니는 여든일곱의 나이에 성당에 다니겠다고 영세를 받았는데 안신부는 어려운 교리 문답은 생략하고 “예수님 마리아”만 외는 것으로 영세를 준다. 할머니는 이후 10년 동안 착실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아흔일곱 나이의 어느날 처음으로 고백성사를 하겠다고 청한다.

이 소설은 이 할머니의 고백성사가 거의 전체 내용이다. (구한말 시기 할머니 어투 그대로여서 읽기에 다소 어렵다.) 그동안 조용한 성품이던 할머니는 갑자기 격렬한 흐느낌으로 지난 삶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길고도 험난했던 한 여인의 삶이었다.

여중인 어미에게서 태어난 ‘언년이’(표마리아 할머니의 이름)는 그 역시 주인집 아가씨의 몸종으로 살아간다. 아가씨가 시집가면서 그도 따라가는데 둘은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는다. 언년이는 유모가 되어 제 자식 대신 아가씨 아기에만 젖을 먹이는 신세가 되고 만다.

어느날 병약한 아가씨도 요양차 친정으로 가고 어른들도 멀리 출타하여 집이 며칠 비게 되었다. 그는 천덕꾸러기처럼 골방에서 지내던 제 딸이 생인손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미로서 감정이 북받쳐 손이 ‘나을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가씨 딸과 바꿔치기를 한다. 좋은 환경에서 제 딸을 입히고 먹이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그만 제자리로 돌려놓을 기회를 놓치고 만다. 아기의 생인손은 나왔지만 이후 손가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다.

아가씨는 결국 병으로 죽고 아무도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른 채 세월이 흐른다. 그러나 운명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아 상전 집안은 격변기 속에 풍비박산이 나고 이후 전쟁의 소용돌이에 다들 뿔뿔이 흩어진다. 전후에 거지처럼 떠돌던 할머니는 우연히 대학 교수가 된 ‘정간난’(제 딸로 데려다 키운 상전의 딸)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에서 손가락 하나가 짧은 식모를 만나게 된다. 모녀의 종살이 운명이 끈질기게 이어진 것이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 왔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눈물로 쏟아낸 고해성사를 한 것이다.

할머니의 긴 이야기는 끝났다. ... 그 긴 이야기는 분명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으나 죄의 고백이라기보다 한을 토해내는 지극히 토속적인 한숨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신부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감았던 눈을 떴다. 마리아 할머니는 앓은 채 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은 무표정하고 평화로웠다. 한에서도 풀려나고 죄에서도 벗어난 얼굴이었다.

표마리아 할머니는 교리문답도 모르고 고해성사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다. 그러나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구원을 청하였으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다. 참된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신부는 노파의 머리 위에 성호를 그었다.
“주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루카 14,21 참조)

김유태 비오 신부

신학생 시절의 일이다.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직 옷을 따뜻히 입고 다녀야 할 계절이었음은 확실하다. 성당에 갈 일이 있어 걸어가는 도중이었는데, 중간에 걸인처럼 보이는 이를 지나쳤다. 행색이 남루했고, 한동안 찢지 못한 듯 얼굴엔 거뭇한 때가 끼어 있었다. 그래도 신학생이었던지라 하느님께서 양심을 움직여 주셨는지, 마음속에선 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무색하게도 말 그대로 ‘지나쳤다.’

이 기억이 오래간 이유는 다른 문제 때문이다. 각기 다른 때이지만, 이후에 비슷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두 번 더 마주쳤는데, 같은 마음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그 사람을 지나쳐 보내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시간이 지나니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주님께선 혹시 당신이 형제로 삼으신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의 모습으로 나를 시험하셨던 것은 아닐까, 주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는데 과연 내가 그분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마태 26,41) 하신 주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다.

이후엔 다른 고민의 순간이 찾아왔다. 해진 후 신부님들과, 혹은 본당의 단체들과, 혹은 소소하게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을 때면 가끔 마주치는 이들이다. 형편이 어려워 물건을 팔거나, 그마저 준비할 여건이 안 되었는지 빈손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 그들을 두고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했다. 이런 방식으로 도우면 그 사람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모습도 있었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호의를 베푸는 모습도 있었다. 나는 대개 조심스레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판단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령 지역 축제가 열리는 곳이면 한 번쯤은 보았을, 수레 비슷한 것에 의지해 땅을 기어 다니며 동정을 사는 이들이 그 통을 뺏어보니 없던 다리가 솟아나 일어서더라니, 아니면 구석진 곳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물건들을 챙기고 가더라니 하는 경우도 그러하고, 동네를 다니며 시주를 받던 어떤 스님 혹은 비구니가 값비싼 차를 타고 퇴근(?)하더라니 하는 경우도 그러하고, 가난한 이들이 가난마저 도둑맞은 시점에서 속지 않고 참된 도움을 주는 일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긴 하다.

그런데 이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 기회가 있다. 서울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인데, 돌아오는 열차 시간이 남아 서점에 잠시 들렀었다. 이런저런 책을 보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는 제목에 끌려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율법에 기초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권하는 듯한 내용이었었는데, 웬지 모르게 가난한 이들에 대한 대목에 관심이 생겨 읽어보았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었는데, 그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난을 흉내내는 자들 가운데 진정 가난한 이가 섞여있을 수 있다고, 그들을 돕는 가운데 필요한 이에게 진정한 도움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기에 가난을 입은 자들을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 책을 쓴 이의 마음속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수백 가지 이유로도 그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어 보였다. 그 거울에 나를 비추니 강도당하고 초주검이 된 이를 지나친 사제의 모습만 보였다.(루카 10,30-31) 창피한 노릇이다. 사랑이니 자선이니 말만 앞세웠지, 실상 나 자신은 그 말들을 가로막고 있어 보였기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1코린 13,7) 부디 주님께서 가난을 입은 이들을 믿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길 바랄 따름이다.

무엇을 위해 신학을 공부하는가?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가톨릭 평신도, 특히 여성이 신학을 공부한다면 누구나 한 번씩 들어 보았을 질문이다. 무엇을 위해, 혹은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 질문에는 신학이 사제가 되기 위한 수련의 일부이거나, 학자들만의 전문적인 작업이라는 편견이 포함되어 있다.

신학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theologia*는 직역하면 ‘하느님(*theo*)에 대한 이야기(*logia*)’이다. 이야기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수단이다. 한 인간의 삶은 이야기로 재구성되어야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걸어올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와 남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하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익힌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인 신학은 그 서사의 중심에 하느님이 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특히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이야기다. 그 하느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읽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다른 이들을 어우른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신학 활동을 한다. 신학은 그러므로 사제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신앙인은 넓은 의미에서 신학자다. 한 인간의 마음에 신앙이 새겨지는 순간은 하느님과 그이 만의 독창적인 서사를 간직한 하나의 신학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하느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신의 삶, 당신의 일상이 곧 하느님이 세상을 향해 풀어 놓는 이야기라니, 가슴 설레지 않는가. 오로지 당신만이 그 서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홀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느님의 이야기인 성서와, 전달된 하느님의 이야기인 전통을 통해 형성된 하느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공동의 기억으로써 하느님의 이야기와 신자 개인의 삶에서 우러난 개별적인 하느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는 전례다.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전례는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교회의 기억이 신자들의 삶으로 선포되고, 신자들 각자의 마음에 짙은 하느님의 이야기가 교회의 기억으로 들어오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전례는 분리될 수 없다. 하느님의 이야기인 신학은 전례를 통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이야기가 된다.



넓은 의미로 모든 신앙인이 신학자이긴 하지만, 학문으로서 신학은 구체적인 목표와 전문화된 영역을 갖고 있다.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비이신 하느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비

신학과 전례는 분리될 수 없다. 하느님의 이야기인 신학은 전례를 통해 숨을 쉬며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

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도, 인간의 언어에 온전히 담길 수도 없다. 그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를 성찰하고 더 적절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다. 신학의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셨는지 연구하는 성서신학,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해왔는지 연구하는 역사신학, 하느님의 신비를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것인지 연구하는 조직신학,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드러낼지 연구하는 실천신학이다. 근래의 현대 신학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신학의 분야를 기계적으로 분류하기보다 개별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분야를 아우르며 대화하는 통섭적 연구, 인문학과 과학의 연구 방법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제간 연구를 선호한다.

모든 신자가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는 신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신학 활동을 표현할 명료한 언어를 찾을 수 있고, 일관적이고 체계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신학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가 참 적절하다. “신학은 지도와 같다 [...]. 교리 그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다. 교리는 일종의 지도일 뿐이다. 하지만 그 지도는 하느님을 만난 수많은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 만일 당신이 더 먼 곳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 지도 자체가 우리의 삶터는 아니다. 그러나 지도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길을 안내한다. 신학도 마찬가지다. 신학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그러나 신학은 하느님을 만난 수많은 이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한다. 지도를 들고 길을 나서는 상상을 해보자. 기호와 문자로 존재하던 지도 속의 장소들이 나의 공간이 된다. 광장과 골목에 나의 이야기가 새겨지고 그곳을 다녀간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들어온다. 이렇듯 신학을 지도 삼아 신앙의 여정을 떠나보자. 사도들과 교부들과 성인들이 이름 붙이고 지표를 세운 신비의 자리를 찾아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엮어보자. 수천년 교회의 역사에서 빛나던 광장들과 막다른 길로 여겨지던 후미진 골목들을 걸어보자. 그곳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느꼈을 흥분과 절망과 희망을 느껴보자. 지도의 지명에 착오가 있듯 신학에도 물론 오류가 있다. 그러나 길이 지워지기도 하고 새롭게 열리기도 하듯, 신학 또한 옛길이 저문 곳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 길은 함께 걸을 때 길이 된다.



일림

교구/본당

복사학교

1차 마산, 진주

일시: 1월 20일(월)~21일(화) 1박2일

2차 창원, 거제

일시: 1월 21일(화)~22일(수)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전국 성소국장 회의

일시: 1월 21일(화)

장소: CBCK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월 29일(수) 10: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청소년 성교육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일시: 기본교육 2월 1일(토)~2일(주일)

심화교육 2월 29일(토) 09:30~18:0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인원: 선착순 36명

참가비: 11만 원(농협 301-0003-8497-31(재)마산 교구청주교회유지재단)

신청방법: <http://familia.cathms.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Fax. 055·249·7100, gasamok2@cathms.or.kr)

마감: 1월 24일(금) 18:00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월기도

일시: 1월 20일(월) 13:00~15:00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일시: 1월 22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정평위 055·261·8201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201차 ME주말 안내 (2박 3일)

일시: 2월 21일(금) 19:00~23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 202차 ME주말: 2020년 4월 17일(금)~19일(주일)

● 203차 ME주말: 2020년 6월 12일(금)~14일(주일)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젊은이 기도학교(진주)

대상: 2030 젊은이

일시: 매일 첫째주 (토) 17:00~(주일) 14:00

문의: 작은자매 관상선교수녀원 010·8246·9460

2020년 살레시오 수도회 겨울 성소대피정

대상: 예비 고3, 성인 일반(만 33세 이하)

일시: 2020년 1월 31일(금)~2월 2일(주일)

장소: 돈보스코청소년센터(서울 여의대방로 65)

문의: 010·5159·3949, 010·3894·1332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바사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기 타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3071

2020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070~1

www.jjscen.or.kr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요)

일시: 1월 31일~2월 2일, 2월 11일~13일, 2월 19일~20일, 2월 27일~29일, 3월 5일~8일, 3월 11일~13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29회 겨울음악학교

일시: 2월 6일(목)~8일(토)

장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대림과 성탄 전례 및 전례 특송곡

신청: 1월 30일(목)

문의: 051·517·8241~2 www.bcmusic.or.kr

<p>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p> <p>3월 28일 청년 이스라엘 순례(1980년 4월 1일 이후출생자) 9월 349만원</p> <p>4월 21일 이스라엘 요르단 11월 419만원</p> <p>4월 28일 성모발현지 13일 410만원</p> <p>본도여행사 02.852.8525</p>	<p>마르코성지순례</p> <p>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p> <p>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p> <p>010-5150-2625</p> <p>진해시니어클럽 자연습</p> <p>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p> <p>비누 만들기 강좌</p> <p>www.jhsc.or.kr</p> <p>055.541.0126, 055.605.6297</p>	<p>SM 수맥홍(홍)침대</p> <p>주보 자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p> <p>평화방송·신문 광고 중</p> <p>1588-5335</p> <p>가톨릭 트래블</p> <p>산티아고 순례길 41일</p> <p>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p> <p>439만원 (20년 4월 2일, 인솔자 동행)</p> <p>070-4086-0207 www.catravel.co.kr</p>	<p>(주) 성운고속관광</p> <p>"신자분 우대 합니다"</p> <p>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p> <p>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p> <p>대표 김종규 바오로</p> <p>010.4588.3448/055.273.0505</p> <p>명례성지 소금 판매</p> <p>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p> <p>함초 소금 200g 1만 원</p> <p>신청 : 055.391.1205</p>
---	--	--	---



오륜대 토요교회사 강좌

개강미사: 3월 7일(토) 14:00
 기간: 3월 7일~10월 31일 매(토) 15:00~17:00(60시간)
 수강료: 20만 원 ※선착순 60명에 한함
 한윤식 신부: 사건별로 보는 세계 교회사
 전수홍 신부: 슬라이드로 보는 세계 교회사
 한건 신부: 한국 교회사
 문의: 051·515·003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함안 안나의 집 입소 안내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시설 등급자
 주소: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 이현우 신부 모친 선종
 이현우 요한 신부(교구 가정사목국장) 모친 김숙자(루피나)님께서 1월 8일(수) 선종하여 1월 10일(금) 옥포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조문하여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망경동성당 제1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배인규(요셉)
 사목부회장(남성): 공영태(요아킴)
 사목부회장(여성): 윤미숙(소피아)
 총무: 문정일(바오로)
 재경분과장: 손원익(요아킴)
 복음화분과장: 김석순(크리스티나)
 가정·교육분과장: 박홍조(베네딕토)
 전례분과장: 강인화(효주 아녜스)
 구역분과장: 전수연(대 데레사)
 사회복지분과장: 이점숙(안나)
 시설관리분과장: 고복식(토마)
 청소년 분과장: 이상욱(필립보)
 25주년총괄준비위원장: 윤석주(요셉)
 25주년사 편찬준비위원장: 공영태(요아킴)

영화 “울지마 톤즈2: 슈크란 바바” 관람 안내

고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 기념작

KBS와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2:슈크란 바바>가 1월 9일(목)에 개봉하였습니다.

단체 관람 문의: (주)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070·7500·7383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 구	1월 20일(월) 19:00	월남동성당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장훈철 신부(바오로, 울산교구)	장훈철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1월 20일(월) 19:00	반송성당	축복으로 이끄는 삶	김선호(요셉, 수원교구)	안찬모 신부(이나시오, 삼위일체)	010·9421·3377
진주지구	1월 20일(월) 19:30	신안동성당	함께	김용 신부(토마스아퀴나스, 군중교구)	김용 신부	010·3846·1980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p>라파엘여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삭라엘, 오르단 10일 4/20,5/6(299만원) ◆ 이태리일주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p>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 (황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p> <p>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p> <hr/> <p>우리농 직매장 2호</p> <p>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p>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p>
--	---	---	---



침묵으로 맞이하는 새해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2020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깊은 침묵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수녀원은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혼만이 존재하는 광활한 광야가 됩니다. 가르멜 수도원의 새해 첫날의 대침묵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질서와 말로 인한 잘못들을 대속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가르멜의 침묵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언어이자,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이끄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침묵하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기도와 침묵은 서로 통하는 연결된 관과 같기에, 기도가 깊어질수록 침묵 또한 깊어지게 되며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침묵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욕망과 혀를 침묵시키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말만 하지 않으면 침묵을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이나 표정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익한 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얽매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 하느님의 리듬에 따르지 않는 서두름,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끊임없는 소음으로부터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침묵하시게 만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르멜에서 침묵의 성녀로 알려진 삼위일체의 엘리사벳은 침묵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조율되어 있지 않은 칠현금에 비유합니다. 자신 안에 스스로를 위해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 영혼은, 자신의 능력을 하느님 안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과 뒤섞어놓아 주님께서 칠현금을 튕기실 때 신적인 하모니를 낼 수 없습니다.” 불협화음을 내는 칠현금의 현들은 침묵을 통해 계속해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자신을 잊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영혼은 “지상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느님께서 마산교구의 모든 신자분들에게
복 많이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